병원 시험장 ·원정 수능…수험생 긴장하지 마세요

광주·전남 코로나 관련 수험생 51명 별도시험장서 응시…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해야

2022학년도 광주·전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17일 오후 현재 51명이 병원 시험장과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험생 중이날 오후 코로나 확진자는 3명, 자가격리자는 40명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수험생 중 코로나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7명이다.

확진자들은 병원 시험장에서, 자가격리자들은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광주는 병원 시험장으로 빛고을전남대병원을, 별도시험장으로 일반 학교 2곳을 각각 확보했다. 전남은 병원 시험장으로 순천의료원과 목포의료 원 2곳을, 별도 시험장으로 일반 학교 7곳을 각각 지정했다.

시·도교육청은 병원 시험장과 별도 시험장 공간 이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 의 응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능 당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의 경우 일반시험장에 마련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수험생 관리를 위해 이날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 생 신속 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 며,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험장 수험생들에게는 KF-AD 이상이나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되지만, 별도 시험장의 격리 수험생들은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내 지침을 적용받는다.

별도 시험장은 시험실 당 4명 이내만 배정하고 쓰레기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 시험장보 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확진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병원·생활치료센터 감독관들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한다. 전신 보호 복과 장갑, 안면 보호구 등으로 구성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 착용하는 수준의 방호복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수험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임시운영한다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에너지 대상 '국무총리 표창'

취약계층•공공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공로

광주 남구가 '2030 그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사 업을 펼친 공로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국무 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산업발전과 효율 향상 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에너 지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으로, 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공공기관에 주어지는 국무 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오 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를 목표 로 그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 2019~2020년까지 관내에서 발굴한 에너지 취약계층 3466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펼쳐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2014년~2020년까지 연차별로 취약계층 1360가구를 대상으로 전력효율 향상에 나서 저효율 조명 1만9720개를 LED로 교체해 전기 사용량을 40%까지 줄이고, 저소득층 135세대에 단열과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를 지원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섬에선 수능 볼 수 없나요

전남 6개 고교 136명 '1박2일' 원정 수능 되풀이

전남 섬 지역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전날 집을 떠나 여관에서 자고, 친구들과 김밥을 사먹으면서 치르는 1박 2일 '원정수능'은 올해도되풀이 됐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정 수능 길에 나선 전남지역 섬 수험생은 6개 고교 136명이다

학교별로는 신안 도초고 52명, 하의고 7명, 진도 조도고 9명, 여수 여남고 21명, 완도 노화 고 31명, 금일고 16명 등이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 신안 도초고 학생들은 도초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거리의 목포 북항으로 향했다.

도초고는 학생 대다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지만, 올해의 경우 수능을 앞두고 원격수 업으로 전환하면서 목포 등 육지에 집을 둔 학 생을 제외한 13명의 학생이 배에 몸을 실었다.

학생들은 목포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18일 이른 시간인 새벽 5시께 일어나 시험장으 로 향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학생 한 명당 10 만원의 지원금으로 예비소집 점심과 숙박비, 수능 당일 식사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은 수능 점심도시락으로 엄마가 싸주는 따뜻한 도시락 대신 숙소 인근 분식집에서 김밥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혹시나 탈이 날까봐 계란이나 햄을 빼고 김밥을 싸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도 있고, 죽집을 찾는 일부 학생도 있다고 한다.

섬마을 학생들의 원정 수능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섬에서 시험을 볼 경우, 시험 당일 배편을 이용해 시험지를 운송·배부·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1개 수험장에 한 학교 수험생 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송미강 도초고 3학년 학생부장은 "올해는 코로나 감염 걱정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생들만 따로 숙소를 잡길 원하기도 했다" 며 "어려운 여건에서 수험생활을 해온 학생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병원 에크모 치료 '세계 최고 수준' 세계에크모학회 우수센터 골드등급 획득

전남대병원이 최근 세계에크모학회의 우수센터 인증을 획득해 에크모(ECMO) 치료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에크모학회는 지난 1980년 창립돼 세계 670여개의 병원이 등록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세계 유일의 에크모 국제학회이며, 매년 다학제 진료·진료 프로토콜·교육 프로그램·환자 수와 생존율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병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그간 체계적인 인 프라 구축과 세계적인 임상 및 연구 결과 등을 인 정받아 우수센터 골드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다학제 에크모팀을 운영하면서 중증 및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 구 및 학회활동 등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에크모는 심폐부전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응급 환자들에게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체외순환형 막형산화기이다. 치료방법은 심장 또는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환자의 피를 신체 밖으로 빼낸 뒤 산화막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펌프를 이용해 심장기능을 대산하면서혈액을 다시 몸 속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중증 심부전과 폐부전 환자, 급성 약물중독환자, 심정지환자 등을 대상으로 에 크모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환자의 생존율 및 장기 예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자동차 거리 'ISO 45001' 국제인증 획득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최초

광주시 북구의 (사)광주자동차거리 상인회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로는 최초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와 산업재해 예 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최고 수준 의 국제인증이다.

자동차거리 상인회는 국제인증을 획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 리를 찾는 고객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 획이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